

“매간당 고택”에서 하루 살아보세요”



영광군은 전라남도중가회(회장 윤형식) 영광지부와 함께 6월 6일부터 11월까지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일원에서 ‘매간당 고택에서 인생샷 찍고, 하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고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 ‘고택중갯집 활용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매간당 고택에 숨어있는 7가지 스토리 찾아보기, 인문학 강연, 공연, 그리고 건강을 위한 매간당 고

영광군, 전남중가회 영광지부와 ‘1박2일’ 체험
조선 후기 전형적 상류층 가옥...오는 11월까지

택 마을 한 바퀴 걷고 힐링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군남면 동간리 동편마을에 위치한 매간당 고택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미인 자손이 태어난다는 매화낙지(梅花落地) 명당 터에 자리 잡고 있다. 민가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동 145칸을 자랑하며 용문양을 한 삼효문이 솟을대문으로 우뚝 서 있고 초가 호지집 3채가 집밖에 남아 있다. 또한 조상을 모시는 사당과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시간여

행은 편리함을 추구해온 현대인에게 전통방식으로 하룻밤을 지내보는 불편함을 체험해보는 시간여행이 될 것이지만 맑은 시간 속에서 매간당의 멋진 솟을대문 삼효문과 토담/돌담/꽃담 등 담장, 문창살 등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은 전라남도중가회 영광지부(kdata@naver.com) 또는 영광군청 문화관광과(☎061-350-5227)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배우세요”

평화광장 앞 바다서 9월까지 무료 체험교실 열려

목포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교실이 열린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연맹장 조윤형)이 주관하고 전라남도과 목포시가 후원하는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은 6월 5일부터 9월까지 평화광장 앞 바다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실은 전액 무료이며 매주 월·화요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오전 2회(10·11시), 오후 4회(2·3·4·5시) 진행된다.

카약, 고무보트, SUP(패들보드)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물놀이 안전 및 안전장비 활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학교 및 단체(10명 이상)는 사전 신청을 하면 바다생존수영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여름방학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오는 12일까지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

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67억1천7백만원 40%)와 목포시(100억7천6백만원 60%)가

공동예산을 마련하여 4월 7일부터 5월 29일 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건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건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군, 멸종위기 I 급 최상위포식자 ‘매’ 번식 확인

자은면서 7km 떨어진 오도서 관찰...국제적 보호종 섬개개비·원앙 등도 서식

신안군은 자은면 인근 특정도서인 오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매가 번식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최상위포식자로 알려진 매는 주로 해안이나 섬의 절벽에서 번식하는 드문 텃새다. 공중에서 먹이를 낚아채 사냥하는 등 비행능력이 매우 뛰어나 사냥의 명수라 불린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사냥하며 암컷은 새끼 기르기와 둥지를 보호한다. 3월 하순에 알을 3~4개 낳으며 포란기간은 28~29일이다. 신안군은 관내 특정도서이자 철

새서식지인 무인도와 갯벌의 철새 도래 현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중 신안 자은면에서 7km 떨어진 오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이자 천연기념물 323호로 지정된 보호종인 매의 번식을 확인하였다. 매는 접근이 불가능한 북쪽 해안 절벽에서 둥지를 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어른새암수 한 쌍과 함께 이소 직전인 유조3개체가 목격되었다. 매 이외에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물 II 급 섬개개비와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 갈새, 파랑새, 바다직박구리 등 6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오도는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관리하고 있다. 갯벌과 인접해 있는 신안의 많은 섬은 검은머리물떼새를 비롯하여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 다양한 철새들이 번식지로 이용하며, 갯벌을 찾는 도요물떼새 또한 중요한 휴식지로 찾고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상위포식자인 매가 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은



서식지가 안정적이며, 주변의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특정도서 등 조류 서식지 관리에 힘써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신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 남악주민 도시농업 생활원에 추진

무안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개 마을 420명의 남악주민을 대상으로 총 15회로 구성된 상반기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공기정화와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탁월한 다육식물 심기, 세로토닌 증가·우울증 감소 등 치유효과가 있는 바구니 정원 만들기, 양파소비 촉진과 우리가족 건강을 위한 양파 김치 만들기 등 생활원에 교육이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농촌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면서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존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시작된 의미 있는 교육인 만큼 생활속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확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